

# 靑春 함께 하니 10만 연등 더욱 밝구나!

###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성료 다채로운 燈, 거리 수놓은 장엄의 물결

‘청춘과 소통’이란 기조 아래 열린 올해 연등회에선 80대 어르신도, 5살 천진 불도, 먼 나라 여행객도 모두 하나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5월 7-8일 서울 중로 일대에서 개최한 ‘불기 2560년 연등회’의 성대한 막이 내렸다.

연등회의 백미인 10만 불자의 제등행렬은 7일 저녁 장충동 동국대 대운동장부터 동대문운동장, 종로, 조계사 앞으로 이어졌다. 도로를 꽂 채운 시민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등에 감탄하는 한편, 장시간 걸음으로 지친 행렬단에게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문헌 고증을 통해 복원한 복합등과 한글오방반, 각 사찰에서 삼혈을 기울여 만든 행렬등은 온 거리를 서방정도로 장엄했다.

제등행렬에 이어 열린 회향한마당에는 진리를 통해 만 중생 제도에 삶을 바친 부처님의 원력을 찬탄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연등회 노래, 모두가 하나 되는 강강수월래 등 사부대중은 꽃비 속에서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이날 오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어울림마당에는 198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인 ‘당신의 생일입니다’를 랩

으로 작곡한 청년울동곡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40개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은 노래에 맞춰 신명나는 울동을 선보였다. 또한 등 경연 시상식에서는 연등지혜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등 19개 사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1986년 성철 스님 봉축법어 청년울동곡 랩으로 재탄생 전통문화마당 청춘코너 신설 “희망과 용기의 물결 이루자”

이 자리에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는 선대의 공덕에 고마워하고 미래의 세대에 보다 나은 세상을 안내할 책무를 지고 있다. 부끄럼 없이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오늘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 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를 환하게 비춰야 한다”며 “마음에서 시작한 빛이 하나로 모여 밝은 거리를 더 넓게 열어가고 희망과 용기의 물결을 이뤄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곳,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곳까



불기 2560년 연등회에서 한마음선원 연희단의 연등을 이용한 화려한 춤사위가 펼쳐지고 있다. ‘청춘과 소통’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등회에서는 청년불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5월 7일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 청년불자들이 신명나는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 환하게 비추어 간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이 내 스스로의 욕심에서 생겨난 것임을 성찰하고, 오늘 우리가 신심으로 밝힌 찬란한 오색 연등을 향기롭게 어우러진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면서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회하오니 대자비를 베푸사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소서”라고 서원했다.

8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

통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올해 전문문화마당은 130여개 부스가 설치돼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불교전문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신설해 처음 선보인 청춘마당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힐링아트·불교 애니메이션그림의 불교카툰·연희단 체험 등이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도 5월 7일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연등회와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제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시작으로 동아대 부민캠퍼스를 돌아 대청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송상현광장에는 용·공작·코끼리·탑 등 대형전통등 100여점이 전시돼 거리를 오색빛으로 물들였다.

특별취재팀

## ‘수월관음도’ 보물된다

### 문화재청, 4건 지정 예고

고려시대 그려진 수월관음도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4일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려 수월관음도’

또한 국보 제233호 ‘傳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고려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인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서울 청진동에서 2009년에 출토된 백자항아리와 조선 왕조 범들의 기본이 된 ‘대명률’ 등 4건이다.

‘고려 수월관음보살’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 중,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관음보살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되었으며, 향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했다.

신성민 기자

## 4대종교, ‘자비·사랑’ 원력 하나로

###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발족 정보 공유·네트워크 강화



종봉협은 출범식 2부 순서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대 종교 봉사단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축하고, 향후 국내외 재난구호활동에서 체계적 역할 분담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 수호를 위해 합심할 예정이다.

5월 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봉공회, 한국교회봉사단은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손인웅, 이하 종봉협)를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손인웅 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1년 임기를 마친 후 4개 단체 대표가 차례로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종봉협은 △중단별 자원봉사 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비·사랑·은혜 등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 수호 △민간자원봉사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원봉사 정책 제안 △재난현장에서 공동 협력 △자원봉사기관의 상생 및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또한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종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시민사회와 연대를 모색한다. 이

를 위해 종봉협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또한 대한적십자사와의 ‘재난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예로부터 모든 종교적 성인들은 깨달은 후에 세상 속으로 돌아가 그 뜻을 펼쳤다. 이렇듯 사회 속에서 인간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라며 “오늘 종봉협 출범이 재난현장에서 공동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인웅 종봉협 회장은 “사랑과 자비 정신의 봉사활동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이를 종교계 역량을 모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향후 110년 일류대학 도약 계기될 것”

### 동국대, 5월 6일 개교 110주년 기념식 개최

개교 11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5월 6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1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사장 성태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주한인도대사 및 14개 해외자매대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10년이 민족사학으로 자리매김한 영광스러운 역사였다면 앞으로 110년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25만 동문, 1000만 불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개교11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학술상 및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원들에게는 ‘동국 학술상’이 수여됐다. 난치성 염증 및 중



총장 보광 스님(오른쪽서 네 번째)과 동국학술상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증전식 치료기술 개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은 약학과 이경 교수를 비롯해 연구 부문 19명, 산학협력부문 20명 등 총 39명의 교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 교원들의 연구열정을 격려하기 위한 ‘동국 우수연구자상’에는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동국대는 직원 13명에게 공로상을, 교원 64명과 직원 17명 등 총 81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전자전기공학부 신재호 교수 등 2명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motb79@hyunbul.com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동국대학교**  
개교 110년

## 역사를 걸으면 동국이 보이고 동국이 걸으면 역사가 됩니다

보배로운 이 땅에 배움의 터 일구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10년 민족대표사학 동국대학교,  
배움과 가르침으로 걸어온 역사만큼  
자랑스러움으로 길이 남을  
동국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명진관** 동국대를 상징하는 제1호 건물로 1956년 완공됐으며 건축가 송민구 선생(1920~2010)이 설계했다